

A Challenge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도전 (고전 15:50-58)

Foundations of Present Hope

Well, here we are....the second week of lockdown in Melbourne because of the latest outbreak of a version of the virus from India. We rightly wonder, 'when's it all going to end?' Of course there are other questions under that big question... "Will there be more positive cases of unknown contact?" "Will we ever enjoy the freedoms we once had in a pre-covid world?"

'When's it all going to end?' is a question we usually ask with no definite answer to the answer...though we want to know the answer...though we want the experts to tell us...there's no expert that can give us the guarantee we want.

But imagine if there happened to be someone who could tell us definitively when it would end & guarantee that the ending would mark a time of no more Covid anywhere in the world. Imagine if that person could tell us not only when it would end, but how it would end & spell out the implications for us. Well, providing we knew that we'd be there to enjoy that very good ending it would completely revolutionise our present hope wouldn't it?

That scenario helps us to think about the last of the twelve challenges for us from 1 Corinthians.....the challenge of the future. The challenge of the future is this...That we would be so sure of our ultimate future, that we would have unshakeable hope now.

Have your hopes been rising with the absence & falling with presence of the virus in the neighbourhood? Well, to some degree Covid-19's consumed all of us. The challenge of the future is how to have hope in the present, that's independent of what happens to us or is happening around us.

인디아 변형 바이러스로, 우리는 록다운 2 주째를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상황은 언제 끝날 것인가?"라는 큰 질문 가운데...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한 묻게 됩니다... "알 수 없는 접촉자를 통해 감염된 사람을 과연 얼마나 나올까?" "코로나 사태 이전 때의 자유를 다시금 누릴 수 있게 될까?"

이런 상황은 언제 끝날 것인가? 같은 질문은, 명확한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아무리 대단한 전문가로 할지라도, 이런 질문에 확답을 줄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언제 끝날지 확실히 말해주고, 그 끝에는 더 이상의 코로나 사태가 없을 것이라 보증해줄 누군가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끝나는지도 말해주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해피 엔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안다면,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 소망에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상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12 가지 도전 중 마지막 도전인 "미래의 도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미래의 도전이란...우리에게는 분명 확실한 궁극적인 미래가 있으며, 이 가운데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 가운데 줄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로 당신의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당신의 소망이 주변에 환경을 통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미래에 대한 도전은,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무관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 희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도전입니다.

Now of course Covid-19 though major potentially overwhelming is just one area that threatens our 'future.' But before us is the definitive word about the end of the broken world as we know it. The word gives us sure hope for the present because the future is entirely certain & wonderful for those in Christ.

But the heart of the problem for the Corinthians was a denial of the future reality.....because it centred on a denial of the bodily resurrection of believers...so the Apostle Paul begins the preceding section by addressing.

The Problem (35-50)

Last week we saw the challenge of death was the Corinthian denial....even our forgetfulness of the link between our Lord's resurrection as the firstfruits & our own resurrection as the fruit to follow. As you read on from v35.....you see that Paul is at pains to correct them about their dismissal of the resurrection.

v35, He says, 'someone will ask, "How are the dead raised? What kind of body do they come? You foolish person! What you sow does not come to life unless it dies.'"

The issue was their rejection of the physical raising of a believer's body because of their skepticism about how it would even be possible. So to help them....Paul then uses the example of the discontinuity between a seed & the plant that grows from it....b/w humans & animals...b/w the sun & the moon. So, also v42, 'with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What is sown is perishable; what is raised is imperishable.' He concludes with the contrast b/w the first Adam & the last Adam who is Christ — the first a man of the dust, the last, the man of heaven. V49, 'Just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man of dust, we sha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man of heaven.'

현 코로나와 같은 사태는 우리를 압도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망가진 세상의 분명한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확고하며 훌륭한 미래가 약속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이런 미래의 모습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그 이유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문제를 지적함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문제점 (35-50)

지난주 설교를 통해 우리는 고린도 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앞으로 그들이 체험하게 될 자신의 부활을 연관성 없는 것으로 여겨,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5 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울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고통을 감수함을 보게 됩니다.

35~36 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 구절에서 나타나듯,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대해 이들은 매우 회의적이었고, 결국 육신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이런 그들을 도우려고 바울은 여기서 씨와 이 씨를 통해 자라나는 식물의 비유를 사용하며, 사람과 동물, 해와 달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42 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씀하고, 결론적으로 49 절에서, 흙에서 난 첫 번째 아담과, 하늘에서 난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대비합니다...49 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Now in v50, 'I tell you this, brothers: flesh and blood can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nor does the perishable inherit the imperishable.'

Paul reassures them about the contrast that the bodies we inhabit now 'flesh & blood' those that die & decay in the grave 'the perishable,' will not be fitting for the glory to come. They were thinking in earthly terms.... But now, having shown that they needed to think in heavenly terms....Paul sets about giving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ir rejection of their own coming resurrection.....that made for a hopeless present because it necessarily meant a bleak future

The Solution: Supernatural Change (51-57)

• For the Living & the Dead (51)

v51, 'Behold! I tell you a mystery.....' Paul starts off with two words that draw our attention to the nature of the coming change....'Behold' & 'mystery.' Behold carries the sense of a command to 'be captured by the awe.' Mystery means something that has been hidden & not able to be discovered by human reason.....The fact that Paul says, 'I tell you a mystery' means that God is about to reveal it.....The sense of what he says is, "Be in awe of what God is disclosing....."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Last week we saw that Christ was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Those who have died in the faith are sleeping (incidentally the word 'cemetery' comes from this word, 'sleep' to mean, 'sleeping place.').

Paul says, that not all will sleep, but that all will be changed.....in other words, the supernatural change will involve the resurrection of those who have died & the transformation of those at that time who haven't died. Supernatural change is coming — for those who have died....for those who are still alive when He returns.

이제 50 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이런 대비 가운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혈과 육은”, 나중에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올 영광의 모습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희망 없는 암담한 미래 가운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해결책: 초자연적인 변화 (51~57 절)

51 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보라”라고 말할 때 이는 “경외심에 사로잡혀”라는 명령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비밀”이라 함은 숨겨져 있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무언가를 의미합니다...그리고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라고 바울이 말씀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무언가를 곧 나타내실 것을 의미합니다...그래서 이 구절을 풀어 해석하자면, “경외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는지 보라”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잠든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을 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cemetery’는 “잠자는 자들의 장소”라는 단어로부터 유래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홀연히 다 변화되리니”라고 말씀함은, 이 초자연적인 변화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됨을 의미하는데, 죽어 잠들었던 자들은 부활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재림 당시 죽지 않고 살아 있던 자들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변화는, 이미 죽은 자들과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The particular threat to our confidence in this future comes particularly in the form of the philosophy known as 'naturalism.' Naturalism by definition, rejects the possibility of any 'supernatural' event. It's the default philosophy of atheism....Many atheists will try to argue that their naturalism is 'scientific,' but when you take a closer look, you see that the very foundation of naturalism is scientifically flawed. Naturalists have to believe the scientific impossibility that everything comes from nothing.

We must regularly remind ourselves that since God created everything, sustains everything & raised the Son by His power.....that He is easily able to work in such a way that is a mystery to our understanding of 'natural' processes. We have every reason that His future..... Is our sure hope for the present ...That awesome future will come....

- How & When (52-53)

v52,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The word translated, 'in a moment' is the term from where we get the word, 'atom.' This future will break into the present instantaneously....Paul adds, 'in the twinkling of an eye.' It's this verse from where you might hear that same phrase today. The manner in which it will happen..... 'How' = suddenly.....

Now Paul tells us 'when' it will happen.....It will be 'at the last trumpet.' 1 Thessalonians 4:16,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cry of command, with the voice of an archangel, and with the sound of the trumpet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V52b,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shall be changed.' Throughout the OT, the sounding of the trumpet was often a rally cry for times of war....in Joel 2, it becomes particularly associated with the day of the Lord for judgement ... then in Zechariah 9 for judgement & salvation.

우리의 이런 부활 소망을 위협하는 세상적 철학 가운데 하나는 '자연주의'라는 철학입니다. 이 자연주의는 어떠한 형태의 초자연적 현상을 부인합니다. 이는 무신론의 기본 철학으로...많은 무신론자는 말하기를 이 자연주의는 과학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자연주의의 기반은 과학적으로도 결점투성입니다. 이 자연주의자들은, 모든 것은 무로부터 온다는 과학적 불가능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시며, 그의 아들을 그 권능 가운데 일으켜 세우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적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라는 사실을 지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분명한 미래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분명한 소망이며, 이 미래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 어떻게 그리고 언제. (51~52 절)

51 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서 홀연히 라는 단어는, 'atom'이라는 단어를 얻게 된 용어입니다. 이 미래는, 현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임할 것이라 말씀하고, 바울은 더 나아가,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지를 보고, 이는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라고 말씀함으로, 이 일이 또한 언제 일어날 것인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 절에서도 이처럼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52 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구약의 배경에서 나팔은 종종 전쟁에 때에 군사들을 집결하기 위한 소리로 사용되었습니다...요엘 2 장에서 이 나팔 소리는 특별히, 주님의 심판에 때와 연관돼 있음을 보고...스가랴서 9 장에서는 심판과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In Matt. 24:32, Jesus said that at His return there will be a loud trumpet call & God's angels will gather the elect. Jesus also tells us that another sign before the end, will be a time of great tribulation upon the world. We don't know that the present distress on the world represents the final tribulation....it could be....we must be prepared & look forward not with a gloomy uncertainty — but with eager anticipation

When the trumpet of God sounds the moment will have arrived for resurrection
'the dead raised imperishable'...& the instant when those alive will be supernaturally changed.
It has to happen because v53, '(For) this perishable body must put on the imperishable and this mortal body must put on immortality.'In God's great plan....He will necessarily raise & transform all who are in Christ to be imperishable & immortal.

To what extent does this future inform your present hope? Notwithstanding griefs of many kinds that come upon us in our broken world....we can conclude, 'not much' if we find our outlook rising & falling with the degree to which our circumstances are favourable. As for the particular group of Corinthians, this future will not change our present hope at all if we don't believe in God's power to do it.

As surely as Christ died & rose....He will return, raise & renew. That's Paul's logic in 1 Thessalonians 4.....that's his logic in this chapter, because that's God's logic for our assurance now.

- What it means (54-57)

V54, 'When the perishable puts on the imperishable, and the mortal puts on immortality, then shall come to pass the saying that is written:

마태복음 24:32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다시 돌아오실 때, 큰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의 증표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려움이, 마지막 환란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아마 지금이 그 마지막 환란의 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우리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준비되고 앞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의 때는 오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던 자들은, 초자연적 현상 가운데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53 절에서 이같이 말씀하기 때문에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죽지 않을 영원한 존재로 부활시키시며,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런 미래의 약속이, 현재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떤 소망을 주나요? 이 망가진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슬픔 가운데, 이런 환경이 우리의 소망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의 소망은 그리 밝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몇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이런 부활의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돌아가시고 부활 하신 것과 같이...그는 다시 오셔서, 일으켜 새우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 장 가운데 바울의 논리이며, 이것이 이번장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확신을 위한 하나님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 그 의미 (54-57)

54 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Here, Paul quotes Isaiah 25:8.....our first reading, where the prophet predicted the great feast that will celebrate the end of death, grief & the reproach or shame of His people.

Then he reformulates a quote from Hosea 13 to show that God’s defeat of death will be so complete as to make a mockery of it: v55,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Our present experience in this fallen world is that death mocks us. We might like to think we have mastery over itto believe that we can take matters into our own hands to delay it indefinitely... But we can’t because V56,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With a word that means a poisonous barb on a creature like a wasp or a scorpion..... Paul tells us that sin is the harmful agent in regard to death.

Sin also has power because of the law. In Romans 7, Paul helps us understand this relationship b/w sin & the law. What Paul says in summary here, he explains there to say that though the law is holy, righteous & good..... sin, like a parasite attaches itself to us so that the law does 2 things

1. It brings death as we fall short — as we break God’s law (Rom 6:23, ‘wages of sin’)
2. It inflames us to greater sin as it makes us more aware of sin

When sin came....it stung our humanity with spiritual poison to bring corruption & death
With the law....it rendered us guilty & showed the magnitude of our guilt. Our sin made us perishable & mortal...the law highlights our judgement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할 때, 이는 바울이 이사야서 25:8 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더이상의 죽음과 슬픔과 수치가 없음으로, 이를 기쁨 가운데 축하할 잔치에 대해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호세야서 13 장 말씀을 인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을 이기심을 다음과 같이 55 절에서 표현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죽음은 우리를 조롱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연장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도,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왜냐하면 56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서 “쏘는 것은”이라 말씀함은, 독을 가지고 있는 말벌이나 전갈의 화살촉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죄는 이런 독과 같이, 죽음과 관련된 해로운 요소라 바울은 말합니다.

죄는 또한 율법으로 인해 힘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7 장에서 바울은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말하기를, 죄는 기생충과 같이 우리에게 들러붙어 있기에, 비록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음 2 가지를 행합니다.

첫째는,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율법은 우리가, 더 큰 죄를 깨닫게 함에 있습니다.

죄가 오게 되었을 때, 이는 타락과 죽음을 가져오는 영적 독을 인류에게 쏟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유죄이며, 우리 죄의 규모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된 것이며...그 가운데 율법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심판을 드러냅니다.

v57,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Jesus has removed our sin — the wages of which — the sting of which — is death; when He took it all into His body on the cross.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the victory — death has been defeated because He has completely absorbed our sin

By His resurrection He has rendered all who die in faith.....to be asleep....await resurrection
He has ensured that all who remain to hear the trumpet await transformation... What a glorious future.....is that your future? It says everything about our present hope....our sure hope from now until we behold Him

The Present Conclusion in Light of this Future (58)

V58, 'Therefore, my beloved brothers,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in the Lord your labour is not in vain.'

The logical application of knowing this future is a present entirely full of hope & purposeful productivity for God's glory

Reflecting on the Corinthians.... we see a church that had lost hope in the present....to be infected with worldliness from the culture as surely as they'd lost sight of the future...

'When will it all end?' God knows...& He has told us when, how & what it means ... by His awesome power.

In Christ we have hope, because we have a future.

57 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우셨고 함께, 죄의 삯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에, 죄는 패배하였습니다.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닌, 부활을 기다림 가운데 잠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미래입니까...이것을 당신의 미래로 믿으십니까? 이를 우리가 붙잡음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이런 미래를 고려한 현재의 결론 (58 절)

58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이런 영광스러운 미래에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이로부터 나오는 적용점은, 우리가 현재를 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생의 삶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를 봅니다...그들은 세속적 문화에 감염되었었고, 이로 말미암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절을 통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 권능의 능력 의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